

산자부, 금년도 수출업체의 해외마케팅 활동에 760억원 지원계획

산업자원부(장관 정세균)는 각 부처·지방자치단체·수출유관기관의 2006년 해외마케팅 지원 예산을 지난해보다 5.5% 증가한 760억원으로 밝혔다. 올해 총 1184개 사업을 지원할

계획으로 조사기관은 산자부, 농림부, 문광부, 보건복지부, 해수부, 환경부, 중기청, 16개 광역지자체, KOTRA, 무역협회, 중소기업진흥공단이다. 또한 산자부는 각 부처 및 수출지원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수출증진 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오는 6월에는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2007년 해외전시회에 대한 참가수요를 조사하고, 이를 토대로 보다 효과적인 해외마케팅 지원체제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해외마케팅에 관심이 있는 수출기업들은 산자부 홈페이지(www.mocie.go.kr) 및 한국전시 포털사이트(www.exportal.or.kr)를 통해 정부의 지원계획 등 다양한 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

KOTRA, '한국, 3년 후 중국 수입시장 1위 부상' 전망

KOTRA(사장 홍기화)는 최근 자체 발간한 '우리의 대중수출 현황 및 증가요인분석' 보고서를 통해 3년 후 우리나라가 중국 수입시장 1위로 부상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난해 한국은 대만을 제치고 중국의 2대 수입국가로 부상했으며 현재 일본의 시장점유율을 비껴 추격하고 있다.

KOTRA는 우리나라의 중국 수입시장 점유율 상승의 요인으로 ▲장강삼각주 경제권 수입 증가 ▲한·중 간 산업 내 교역 확대 ▲우리의 대중투자 확대 ▲한류와 인적교류 증가 등을 지적했다. 이와 같은 상황을 인지하고 급변하는 중국시장에서 대중수출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중장기 시장전략 포인트가 필요하다. 그 일례로 신흥 유망지역에 대한 진출확대가 주목되고 있다. 중국 내 신흥시장 성장이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규모 확대로 연결됨을 고려할 때, 향후 화동지역에 대한 진출을 확대함과 동시에 장기적으로 시장 확대 가능성이 높은 동북3

성 지역과 서부지역에 대한 진출을 확대 모색할 필요가 있다.

중진공, SMS 및 E-mail로 민원처리 안내 서비스 실시

중소기업진흥공단(이사장 김홍경)은 지난 3월부터 민원신청 후 결과를 공급해 주는 중소기업들을 위해 회원가입에서 사업승인까지의 처리결과를 단계별로 '문자서비스(SMS)' 및 E-mail로 통보하는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중진공은 이번 서비스를 발생빈도가 높은 자금 지원사업과 종합진단서비스의 일부 과정에 대하여 우선 실시하고 있으나, 향후 중진공이 추진하고 있는 모든 사업에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프심위, 지역별 전략산업 맞춤형 IT지재권 법률지원

프로그램 심의조정위원회(위원장 구영보)가 지역의 IT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IT지적재산권 법률지원에 나선다. 프심위는 올해 정보통신연구진흥원(ITA)의 IT지적재산권센터와 함께 각 지역의 IT벤처기업연합회 등 지역유망기업들이 속한 단체들을 대상으로 법률교류과 방문컨설팅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는 정보통신부가 추진하는 'IT지재권 활용기반 조성사업'에 따라 지자체의 벤처기업 육성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특화된 IT지재권 분야의 법적대응능력 향상 및 인식제고를 위한 것이다. 이와 함께, 프심위는 IT법률종합지원 사이트(www.itnlaw.or.kr)를 통해 온라인 법률상담, 해외의 IT지재권 관련 법·제도 동향 메일링 서비스 제공 등 중소벤처기업 IT지재권 관련 지원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전남도, 수출중소기업 '해외규격인증 획득 확대 지원'

전라남도(도지사 박준영)는 최근 해외규격인증 획득지원사업 추진 계획을 마련하고 모두 1억 4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신제품을 개발하고도 해외인증 마크가 없어 수출에 애로를 겪는 수출



중소기업들에게 필요한 제품시험·분석, 인증수수료 및 컨설팅 등 소요되는 비용을 수출능력에 따라 지원하게 된다.

부천시, 'U-부천 구현을 위한 산·학·연·관 컨퍼런스' 개최

부천시(시장 홍건표)는 지난 3월 20일 부천 지역의 IT분야 산학연관 협력방안과 대응전략을 논의하는 U-부천 구현을 위한 산·학·연·관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부천시는 부천권 주력 사업에 대한 유비쿼터스 기술을 관련 산업에 접목시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 U-IT기술을 다 지자체보다 선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관련기관, 단체와의 연구 및 정보교류와 부천권 IT 관련 벤처기업을 육성·지원한다고 밝혔다.

충남도, 벤처농업박람회 성공을 위해 범도민 추진지원단 구성

충청남도(도지사 심대평)는 전국 최초로 열리는 '2006 벤처농업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범도민 추진지원단을 구성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참여와 홍보가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박람회의 홍보 및 도민 참여 분위기 조성에 역점을 두고 활동하게 된다.

이에 따라 충남도는 범도민 추진지원단이 박람회 운영과 관련하여 개선할 사항이나 불편한 내용 등을 건의하거나 정보를 제공하면, 해결책을 모색하는 등 지원단의 의견을 박람회 운영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갈 방침이다.

마산시, 지역 기업인과 간담회 개최

마산시(시장 황철곤)는 관내 중소기업 활성화 대책으로 매주 2회에 걸쳐 지역 기업인과의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는 시장이 직접 기업현장을 방문해 사기를 진작시키고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여 해소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되며 내서기업인협의회와 봉암공단협의회 등을 차례로 방문한다.

또한 마산시는 기업의 애로사항 청취를 위해 0315기업사랑 기업인 전용 전화(전화 055-245-0315)를 시장 집무실에 설치, 매주 2회(화·목요일) 운영한다. 0315기업사랑을 통해 시장이 직접 기업인과 대화로 건의사항 및 애로사항 등을 들어 즉시 처리하고 시장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대덕CEO과정' 교육 3월 2일 첫 출발

대덕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이 사장 박인철)가 주최하는 대덕CEO과정'의 첫 강좌가 지난 3월 2일 대덕컨벤션타운에서 열렸다. 4월 말까지 총 8주간 진행되는 이번 과정은 특구에 맞는 최고경영자를 육성하

기 위해 특구본부를 비롯 한밭대학교, 삼일회계법인, 코스닥성장법인협의회, 대덕넷 등이 참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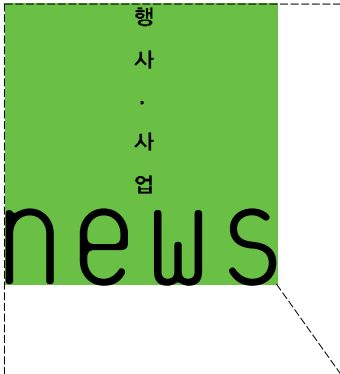
특구본부 관계자는 "서울까지 올라가야 들을 수 있었던 유명 강사진에 교육비까지 저렴해 특구기업인들에게는 놓칠 수 없는 교육 기회가 될 것"이라며 "특구 성공을 위해 실력 있는 인재가 꼭 필요한 시기인 만큼 2기 과정에서도 기업담당자들의 많은 참석을 바란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한국CFO스쿨이 수행기관을 맡은 경영자금 고급 재무교육인 대덕CEO과정을 4월 7일부터 진행할 예정이다. 대덕CEO과정 및 다음 2기 교육 참여를 원할 경우는 특구본부(전화 042-865-8873) 및 대덕넷(전화 042-861-5005)으로 연락하면 된다.

대덕-울산 간 정밀화학 초광역 클러스터 출범

대덕과 울산이 지역을 넘어 초광역 클러스터를 출범시켰다. 두 도시는 3월 15일 대덕컨벤션타운에서 대덕과 울산 간 상호 협력 체제 구축을 위한 정밀화학 초광역 클러스터 출범식을 갖고 두 지역 간의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대덕밸리 정밀화학·환경클러스터의 김태현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대덕과 울산이 경쟁보다는 협력을 통해 서로 발전할 수 있는 밑그림을 그리고 있다"며 "두 도시는 국가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해낼 것"이라고 초광역 클러스터 출범의 의미를 밝혔다.

이와 함께 행사장에는 각 도시의 기업을 알릴 수 있는 포스터가 전시돼 참가자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앞으로 정밀화학 기술 인프라와 연구개발 기능이 강점인 대덕특구와 생산시설을 갖춘 대기업이 대거 몰려 있는 울산은 두 도시의 강점을 살려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서울산업통상진흥원, 2006년 상반기 벤처창업스쿨 교육생 모집

서울시(시장 이명박)와 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 권오남)은 새로운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창출하고 고용창출도가 높은 21세기형 신지식·신기술 집약형 아이디어 사업 분야 창업을

활성화하고자 국내 최초의 '첫개념 신학연 벤처창업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한다고 밝혔다.

서울시 창업보육센터 입주 신청 시 가산점을 부여하여 적은 비용(월 임대료 약 6천원/평당)으로 입주할 수 있도록 하고, 입주 후 무료로 벤처창업스쿨 후원기관인 한국벤처캐피탈협회 등 관련기관의 협조를 통한 투자설명회를 개최한다. 또한 정부정책자금 유치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창업 초기의 안정적인 성장을 지원할 계획이다.

<벤처창업스쿨 운영 개요>

교육대상 : 서울소재 벤처·중소기업 예비창업자 및 창업 후 1년 미만 초기 창업자

모집기간 : 2006년 3월 15일(수)~4월 8일(토)

교육기간 : 2006년 4월 21일(금)~7월 5일(수)

교육운영 : 주간반(주 2회-월, 수 오전 10시~오후 4시), 야간반(주 3회-월, 수, 금 오후 7시~10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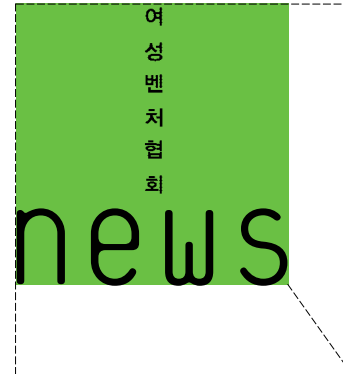
교육장소 : 서울벤처타운(강남구 역삼동 소재)

교육비 : 총 15만원(교재제공, 유료회원비 3만원 포함)

교육과정 : 3개월 단계별 교육

교육 수료자 특전

- 경영기술컨설팅 및 기술개발 지원
- 전문가의 창업컨설팅 제공
- 서울벤처정보대학원대학교 진학 시 학점인정
- 창투자 연계 투자유치 지원
- 창업보육센터 입주 시 가산점 부여 및 추천서 발급
- 서울시장 명의 수료증 수여
- Hi Seoul 벤처창업스쿨 심벌마크 부여
- 산업재산권취득 지원



신규 회원가입 업체 발표

3월 동안 총 13개 업체가 여성벤처협회의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였다.

- 시도우(대표 김영미) : 소프트웨어개발 외
- 자이크소프트(대표 조수영) : 소프트웨어개발, 온라인 정보제공업
- 에너솔(대표 조경숙) : 컨덴서

- 포웰바이오펜(대표 최영초) : 숯 가공제품 침구류 외
- 유비로종합법률사무소(대표 김영순) : 법률서비스
- 세명공인노무사사무소(대표 이희자) : 노무서비스
- 티매스(대표 이홍영) : 교육, 기획
- 파라코(대표 조현주) : 화장품 제조 및 유통
- 강원환경(대표 하종영) :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 아키텐넷(대표 이정은) : 소프트웨어개발 및 공급, 시설감시 시스템
- 마켓채널(대표 박미영) : 지역명품브랜드, 지역특산물 중개
- 하이센스큐(대표 임정하) : 컴퓨터 및 주변기기, 소프트웨어개발
- 데지안(대표 이의경) : 디자인, 문화콘텐츠 기획

* 회원가입 안내 및 가입특전 등 회원가입에 필요한 사항은 홈페이지(www.kowva.or.kr)를 참조.

제9회 여성기업 성공사례 발표회

여성기업인들에게 기업의 경영방침과 용기를 전하기 위하여 여성기업 성공사례 발표회를 개최한다. 여성벤처기업을 경영하면서 역경을 딛고 기업가로서 안정된 자리에 오른 여성벤처기업인의 생생한 체험담을 들을 수 있다.

일시 : 2006년 4월 27일(목) 오후 2시~5시

장소 : 부산 동의대학교

주최 : 중소기업청

주관 : 한국여성벤처협회

참여대상 : 여성경제인, 예비창업자, 대학생 등

주요내용 : 창업아이템 선정전략, 여성기업인 성공사례 등 강연

참가비 : 무료 (자료집 및 기념품 등 제공)

문의처 : 한국여성벤처협회 사무국 (전화 02-6009-8500)